‘4+4 야권연대’ 협상 끝모르는 진통

당선 어려운 지역 양보하면 모를까…

광주 서구·순천 양보안 지역의원 반발

시한 넘겨…“막판까지 합의점 찾을 것”

6·2 지방선거 ‘4+4 야권연대’ 협상 타결을 위해 각 당 협상 대표들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 최종 시한인 19일에도 의견 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협상시한 마지막날인 19일 영등포 민주노동당사에서 선거 연대에 대한 논의를 밤늦게 진행했다.

야권은 지난 16일 협상에서 호남에서의 연대 문제를 뺀 대부분의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민주당 내부 반발이 심한 데다 국민참여당이 새 조건을 들고 나와 협상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양보안에 대해 해당 지역으로 거론되는 광주 서구와 순천의 지역위원장은 물론 광주·전남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 추인마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의원회관 125호실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성공적인 야권연대를 위해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과 방식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야권연대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정권교체를 위해 헌신하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는 야권연대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호남 공천 양보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또 “야권연대는 야 4당이 각각의 후보를 따로 공천해서는 승리가 어렵거나 불투명한 지역에 국한해서 논의돼야 한다”며 “추진방식 또한 ‘정당 중심’이 아닌 ‘후보 중심’의 단일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야권연대를 이유로 경쟁력 있는 민주당의 후보를 아예 공천하지 말자는 것은, 당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태가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선옥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 광주 서구지역 출마자 등도 이날 오전 당 대표를 만나 서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는 양보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달하는 등 호남 일부 기초단체장 무공천 양보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참여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이 수도권 지방의원을 더 양보해야 하고 지역단위 협상에 맡긴 충북·강원·영남 등도 중앙당 차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협상 전체가 뒤틀리고 있다는 것. 나아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도 경기도지사 경선룰(여론조사 50% + 도민 선거인단 투표 50%)과 관련, 민주당에 ‘동원 경선’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9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후보가 19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열사들의 묘를 살펴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 전남지사후보 김대식씨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9일 6·2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로 김대식 후보를 내정했다.

공심위 대변인인 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여론조사 경선 결과, 김대식 후보를 전남지사 후보로 결정했다”며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 출생인 김 후보는 동서대 일본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이 정부 출범 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3월4일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완도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와 도서 간 연결사업이 조기에 완공에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완도군이 그동안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남 중서부지역과 완도 간 접근도가 높아져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개발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완도의 도서지역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정부의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고예산을 조기 투입해 하루빨리 완공,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일당독재 종식 앞장”

정용화 한나라 광주시장후보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민주당이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시민이 많다”며 “광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지역주의에 안주하고 호남을 이용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과 함께 광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종식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분열의 정치구조를 극복해야 선진 인류국가로 나설 수 있다”며 “5·18 3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단체장 출마·당내 경선 대거 탈락

시도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될 듯

광주시·전남도의원들이 오는 6·2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는 등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16명 의원 중 민주당 광산구청장에 도전했던 유재신, 이정남, 강박원 의원은 예비경선(컷오프) 또는 경선에서 모두 탈락했고, 시의원 재선에 도전했던 김성숙, 김동식 의원은 후보 압축 과정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다.

또한, 조광향 의원(비례)은 불출마 의사를 굳혔고, 김월출 의원은 민주당 복당이 이뤄지지 않아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면서 고전이 예상된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나머지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도 ‘쟁쟁한 후보들’과 경선을 치른 뒤에야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 있어 당선까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민주당 공천 잡음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확산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무소속 광역의원 후보의 약진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 9명 중 많아야 4~5명 정도가 시의회 재입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현역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물갈이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 51명 중 이날 현재 단체장 출마, 경선 탈락 등으로 물갈이가 확정된 의원은 모두 26명. 박인환 의장 등 10명이 단체장 출마로 도의원 도전을 접었으며, 19일 도의장으로 선출된 강우원 의원등 현역 10명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밖에 비례대표 5명,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직위 상실된 1명 등도 도전을 접었다.

하지만, 민주당 당내 경선이 진행될수록 ‘탈락’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선탈락 의원들 대부분은 자신 지역구에서 기초의회 출신 의원이나 공무원 출신 등 지역 ‘토박이’에게 고배를 마시고 있어 ‘지역구 관리’가 새삼 강조되고 있다.

남아있는 35명의 도의원도 현직 기초의원들로부터 도전장을 받은 경우가 많아 이번 선거에서 생존해 도의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의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권일·김지을기자 cki@

‘벽창호’ 전남도의회

70일짜리 의장 선출

강우원씨 당선

‘임기 막판 감투 챙기기’라는 비난을 샀던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강우원(영암1·민주)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 잔여 임기 수행을 위한 의장선출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강 의원이 투표에 참가한 도의원 32명 중 17표를 얻어 15표를 얻은 송범근 의원(담양2·민주)을 누르고 의장에 뽑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1차 투표에서 송 의원과 같은 15표를 얻어 2차 투표를 실시했으나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결선투표까지 갔다.

전남도의회는 의회 임기 만료일이 6월 30일로 임기가 70여일 밖에 되지 않는데다, 부의장도 있는 상황에서 의장을 새로 뽑기로 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시장 예비후보 경선결과 승복해야”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는 19일 “민주당이 광주시장 경선 후유증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염려를 더해주고 있다”며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경선 후보들은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교단협의회 관계자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배심원제에 대한 시민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의 선택으로 강운태 후보가 선출된 것은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임을 신뢰케 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당리당략의 주도권 싸움으로 광주시민을 불안하게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이탈을 가져오게 하는 책임을 지고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단협의회는 “광주시내 교파를 초월한 1천300여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1980년대 아픔을 겪었다”며 “민주당은 올바른 정서를 가지고 변화의 새 물결을 일으켜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평민당 전남지사 후보

김경재 전의원 공천

평화민주당은 19일 6·2 지방선거의 전남지사 후보로 김경재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김 전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역 등을 거쳐 15,16대 의원을 지냈다.

평화민주당은 금주안으로 시도당별 공천심사위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21~30일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